

광주, 유스퀘어·축산유통업 등 연쇄감염

유스퀘어 3명 늘어 8명·축산유통업 1명 추가돼 14명 광주, 노래방·감염경로 불분명 등 추가...누적 2741명 전남 자가격리자·기존확진자 접촉 3명...누적 1413명

광주에서 유스퀘어 입점시설 이용객을 비롯해 노래방, 축산유통업 관련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11명이 추가됐다.

전남에서는 자가격리자 등 여수와 순천, 함평에서 3명의 감염자가 나왔다.

25일 광주와 전남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는 11명, 전남에서는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는 2731번~ 2741번, 전남은

1411번~1413번 확진자로 등록됐으며 격리대상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광주지역 이날 확진자 중 3명(2731번·2737번·2739번)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광천터미널 인근의 유스퀘어 입점시설 관련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2701번의 가족과 이용객, 지인이며 전남 커피전문점 판매점 감염자(광주2726번)까지 포함하면 유스퀘어 시설 관련 확진자는 8명으로 늘

었다.

방역당국은 유스퀘어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이날까지 총 265명을 검사해 이중 138명이 음성, 119명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가 다수 나온 축산유통업 관련 확진자도 이날 1명(광주2734번)이 추가돼 누적 14명으로 늘었다.

또 광주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광주2733번)과 CCTV관제센터 직원(광주2736번)의 감염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광주에서는 유증상 검사를 통해 3명(광주2732번·2738번·2741번), 기존 감염자와 접촉으로 인해 2명(광주2735번·2740번)이 추

가됐다.

전남에서는 자가격리자 2명, 기존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1명 등 총 3명이 감염됐다.

전남1411번과 1412번 확진자는 각각 여수와 순천 거주자이며 기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해제를 앞두고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함평 거주자인 전남1413번 확진자는 전남 감염 판정된 1409번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담양소방, 화재경보기 인명피해 막아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5월 초 곡성군 입면 대장리 주택에서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집안에 머물러 있던 거주자 안씨는 화재경보기가 동작하여 집밖으로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방지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고, 주택일부가 소실되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박상래 소방서장은 “화재경보기가 초기에 동작하여 인명피해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화재경보기가 보급된 가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보급된 가구는 군과 협력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무안소방, 고층 공사장 민·관 사다리차 공동대응 훈련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11일 고층건물 화재 시 인명구조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 사다리차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간 사다리차 활용한 인명구조한 사례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관 사다리차 공동대응 훈련의 필요성에 의해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 소방(민간) 사다리차 전개훈련 ▲ 사다리차 회전반경에 따른 조작훈련 ▲ 사다리차 바스켓 탑승 후 무선통신 훈련 ▲ 고층건물 인명구조 및 대피훈련 ▲ 고층 이동용 소방휴대기방 활용 현장 훈련(시간체크) ▲ 고층건물 가상화재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했다.

박원국 무안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은 고층건물 화재 시 민·관 사다리차와 공동으로 훈련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해 인명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소방,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장 수여식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25일 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임용장을 열고 신규 소방공무원 1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신규 소방공무원은 지난 해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한 뒤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12주간 전남소방학교에서 기초 소방훈련과 공직 소양업무 등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이들은 25일부터 광양소방서의 119안전센터와 구조대에 편성되어 소방 최일선에 배치돼 광양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민정 소방공무원에 신규 임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공직 사회의 첫발을 광양소방서에서 내딛게 되어 모든 직원을 대표해 환영하며, 소방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연단하여 졸업했지만 앞으로 실전에서 선배 동료 소방공무원에게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현장에 강하고 전문성 있는 소방공무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 동부소방, 10년 지난 노후소화기 폐기·교체 당부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외부 용기가 부식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도 즉시 교체·폐기해야 한다.

노후화된 소화기는 압력이 낮아 사용할 수 없거나 화재 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분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 확인하여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김인택 예방안전과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며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광주·전남 외벽작업 중 잇단 추락사...“안전수칙 엄수할”

‘밧줄 건 작업대’ 달비계 추락사로 두 달 새 3명 사망 “작업용·구명 밧줄 분리 설치, 사전점검 반드시 해야”

광주·전남지역 건설현장에서 최근 달비계(밧줄에 매달린 작업대)를 이용한 외벽 작업 중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 등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최근 두 달 사이 광주·전남에서 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지난 19일 오전 8시15분께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한 건설 현장에서는 A(64)씨가 장물 고정 작업을 위해 달비계를 타고 내려가던 중 를 고정 밧줄이 풀리면서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모 건물 신축 현장

에서는 B(72)씨가 외벽 도장 작업을 준비하던 중 달비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달 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나주시 빗가람동 한 현장에서도 C(56)씨가 달비계를 타고 외부 창틀을 보수 작업 도중 변을 당했다.

고용노동청은 밧줄을 건물에 고정시켜 매달은 작업대에 의지해 고공에서 작업하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사고 유형 별로는 작업대 고정 밧줄 풀림, 작업대 올라 타는 중 추락, 작업대 밧줄 마모에 의한 절삭 등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락 사고 예방 수칙으로 ▲작업용 밧줄은 2곳 이상 견고한 고



정점에 별도 결속 ▲작업용 밧줄·안전대 길이용 밧줄(수직 구명줄) 병행 설치 ▲안전모 착용 ▲작업용 밧줄·수직 구명줄 접촉 건물 모서리 부위 보호대 설치 ▲관리 감독자 안전 장구류 사전 확인 등을 강조했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달비계

작업 특성 상 숙련 노동자들이 습관화된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용 밧줄을 제대로 결속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기본 안전 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 참혹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선욱기자

전남 북부에 지름 1cm 안팎 우박...“공식 관측 안 돼”

광주·전남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 우박이 내렸다.

2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 사이 담양·장성 등 전남 북부권 지역에 지름 1

cm 안팎의 우박이 내렸다.

광주기상청은 대기가 불안정해져 우박이 내렸으나 다만 공식 관측 지점이 아니어서 육안으로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우박에 따른 피해 상황은 아직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담양 3.5mm, 순천 황전 1.5mm 등을 기록, 약한 비가 내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오전 중 전

남 일부 내륙지역에 약한 비와 함께 우박이 내렸지만, 공식 관측으로 기록되지는 않았다”며 “농작물·시설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

